

2010년대 일본 여성만화의 변화 - 로맨스의 증발과 자아의 출현

김소원*

1. 서론
2. 2010년대 일본 여성만화의 변화
 - 2-1. 로맨스가 휘발된 서사
 - 2-2. 젠더 문제와 마주한 소녀만화
3. <나기의 휴식>
 - 3-1. '공기를 읽는다는 의미
 - 3-2. 편견을 타파한 캐릭터
4. <다루짱>
 - 4-1. 여성에게 엄격한 사회
 - 4-2. 냉정한 현실 묘사
5. 결론

국문초록

만화는 사회의 변화와 독자들의 요구,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취향의 변화를 항상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발전한다. 소녀만화와 여성만화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여성만화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로맨스 대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나 여성의 서사, 자아실현을 그리는 작품이 증가했고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등 민감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도 등장했다. 이전 세대의 만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작을 중심으로 로맨스가 배제된 서사를 가진 작품과 젠더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몇 편 선정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해 이러한 변화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2010년대 일본 여성만화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 중심의 서사를 통해 소중한 일상을 그린 〈바닷마을 다이어리〉, 새로운 시선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 Tits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젠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안녕 미니스커트〉를 통해 2010년대 여성만화의 흐름을 살펴본다. 그리고 20~30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은 만화 〈나기의 휴식〉과 〈다루짱〉이 동시대 일본 여성의 삶과 고민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집중 분석한다. 〈나기의 휴식〉은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던 주인공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찾는 모습을 그렸다. 〈다루짱〉 역시 자아실현과 함께 주인공이 겪는 성희롱과 불평등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리면서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나기의 휴식〉과 〈다루짱〉은 20대 직장 여성의 고민과 자아실현을 일본 사회의 고유한 현실에 기반해 매우 현실적으로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특별한 것은 주인공이 하는 고민의 내용과 해결 방법이 이전의 만화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여성만화의 가장 큰 변화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오랜 시간 일본 사회가 안고 있던 불합리한 차별과 구습에 기인한다. 만화는 시대상과 여성상, 가치관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여성만화의 이러한 변화는 곧 당대 독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들이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제어: 만화, 소녀만화, 여성만화, 〈나기의 휴식〉, 〈다루짱〉, 일본만화, 2010년대)

1. 서론

28살 회사원 나기는 심한 곱슬머리를 매일 아침 고데기와 드라이기로 정성 들여 펴고 잘랑거리는 생머리로 세팅하고 출근한다. 주변을 의식해 도쿄 중심가에서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집에 살고 있고 그러기 위해 '절약이 취미이자 특기인 생활을 하고 있다. 나기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비정규직 사원 나루미는 온몸이 흐물흐물한 '다루다루성(星)' 사람이지만 매일 아침 드라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어 인간처럼 보이도록 변신한다. 나루미는 평생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주변 친구들을 관찰하고 흉내 낸 끝에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기와 나루미는 어느 순간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끈 만화 <나기의 휴식(風の暇)>과 <다루짱(ダルちゃん)>의 내용이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진짜 나를 찾아 인생의 결단을 내린 두 사람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사뭇 다르지만, 이들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선명하다. 2016년 8월부터 『엘레강스 이브(Eleganceイブ)』에 연재되고 있는 코나리 미사토(コナリミサト)의 <나기의 휴식>¹⁾은 현재 7권까지 발행되었고 단행본 발매 부수가 300만 부를 돌파한 히트작이다.²⁾ 2019년 제22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만화부문 우수상, 제65회 쇼가쿠칸(小学館) 만화상 소

1) 2017년 1월 26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 『엘레강스 이브』의 출판사인 아키타쇼텐(秋田書店)의 웹 만화사이트 『챔피언 탭!(Championタップ!)』에 연재되기도 했다.

2) コミックシーモア, 『エレガンスイブ 2020年 2月号』

(<https://www.cmoa.jp/title/120513/vol/42>, 접속일: 2020.7.11.)

녀만화³⁾ 부문, ‘이 만화가 대단해! 2019’⁴⁾ 여성만화 부문 3위를 비롯해 여러 만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⁵⁾ 하루나 레몬(はるな檸檬)의 〈다루짱〉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화장품 메이커 시세이도의 공식 웹진 하나츠바키(花椿)⁶⁾에서 연재된 작품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홍보 사이트인 만큼 주 이용자는 성인 여성이다. 만화 잡지도 아니고 만화 플랫폼도 아닌 화장품 회사의 홍보 사이트에서 연재되었음에도 이 작품은 꽤 큰 반향을 불러왔고 쇼가쿠칸에서 컬러 만화로 출판되었다. 〈다루짱〉은 단행본 발매 직후 2쇄를 인쇄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은 고용 불안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이전의 여성만화와 선명하게 구분된다.

-
- 3) 독자의 나이와 성별로 만화의 장르를 구분하는 일본에서는 독자가 여성 혹은 소녀인 만화를 ‘소녀만화’로 구분한다. 그리고 소녀만화를 다시 20대 이상 성인을 주요 독자로 하는 ‘여성만화’, 성인 대상 작품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성적 묘사가 포함되는 만화를 ‘레이디스 코믹스’로 ‘레이디스 코믹스’보다는 독자의 연령이 낮고 소녀만화의 전형적인 연출과 그림체를 보여주지만, 성적인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만화는 ‘TL(Teen’s Love)’로 세분한다. 본 논문에서 〈나기의 휴식〉과 〈다루짱〉을 ‘여성만화’로 구분하지만, 일본의 일부 텍스트에서는 이 작품을 ‘소녀만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 4) ‘이 만화가 대단해!(このマンガがすごい!)’는 무크지와 취미, 실용잡지를 주로 출판하는 다카라지마(宝島)사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모든 만화를 대상으로 서점 직원, 만화 업계 관계자, 대학 만화 동아리 회원, 잡지 편집부, 만화 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만화 애호가들의 폭넓은 앙케이트를 집계해서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무크지로 출판한다. 상업 출판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작가나 단편집 등 숨어있는 좋은 작품이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순위 발표와 함께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주목받고 있는 만화상이다. 2014년부터는 만화 정보 사이트 ‘이 만화가 대단해 WEB(このマンガがすごい! WEB)’을 함께 운영한다.
- 5) 이밖에도 2017년에는 인기 여성잡지 『anan』의 만화대상, 2018년 모두가 뽑은 TSUTAYA 코믹대상 2018, 빅스트 브레이크 부문 4위, 『SPRING』 컬처 어워드 2018 만화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 6) 1924년 창간한 『시세이도 월보(資生堂月報)』를 전신으로 1937년 창간된 시세이도 홍보 잡지. 2015년 12월 폐간되고 2016년 1월부터 웹진으로 이행했다.
(花椿 <https://hanatsubaki.shiseido.com/jp>)

〈나기의 휴식〉과 〈다루짱〉은 20대 직장 여성의 고민과 자아실현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2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특별한 것은 주인공이 하는 고민의 내용과 해결 방법이 이전의 만화와 다르기 때문이다. 만화는 사회의 변화와 독자들의 요구, 그들의 생각과 취향의 변화를 항상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발전해왔다. 로맨스가 그려지는 공간도 그 시대에 맞게 변화했고 변화의 흐름에 맞게 진화한 여성상을 창조해 왔다. 특히 최근 성인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의 배경과 주인공 여성은 좀 더 현실과 밀착된 공간과 설정으로 변화했다. 최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들은 현실성 있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로맨스가 제거된 보통의 일상을 그리며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한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뿐 아니라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작품도 증가했다. 소녀만화와 여성만화에서 정면으로 다룬적 없는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를 다룬 작품도 등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살펴본 후 〈나기의 휴식〉과 〈다루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 2010년대 일본 여성만화의 변화와 의미, 그리고 무엇이 많은 독자를 이 작품에 공감하게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2010년대 일본 여성만화의 변화

본 논문에서는 10대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소녀만화’로 20대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여성만화’로 부르기로 한다. 보편적으로 일본에서는 소녀와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를 크게 ‘소녀만화’로 구분하며 ‘여성만화’도 그 일부로 포함하는 경향이 있

다. '소녀만화가 반드시 '소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편의상 소녀와 여성들을 독자로 하는 작품도 '소녀만화'라는 큰 틀로 묶는 관습이 존재한다. 즉 '소녀만화와 '여성만화'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알려두고자 한다.

〈나기의 휴식〉과 〈다루짱〉 중 대중의 주목을 더욱 크게 받은 작품은 〈나기의 휴식〉이다. 인기 잡지에 연재되고 있고 2019년 7월부터는 TBS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드라마도 시청률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매회 드라마 부문 시청률 상위권에 들며 순항했고⁷⁾ 작품의 인기는 원작 만화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원작 만화와 드라마가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기의 휴식〉은 이른바 '아라사 여자(アラサー女子)', around thirty 즉 30살 전후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으로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의 독자들에게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30세를 전후한 연령대의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작품들의 특징은 독자들이 작품의 주인공에게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치환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린다는 데에 있다. 이들 작품은 역사 속의 무대라든가 판타지의 세계와 같은 지나치게 멀리 있는 공간보다는 독자들과 주인공 사이에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배경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인공은 독자들과 동시대를 사는 일본 여성으로 매일 같이 직장에 다니고 일이나 결혼, 연애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는 작품이 많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여성만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려진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이지만 연애에는 매우 서툴다. 그럼에도

7) ビデオリサーチ, 2019년 7월 15일-9월 22일 시청률 데이터
(<https://www.videor.co.jp>, 접속일: 2020.7.9.)

결국 멋진 남자들과 로맨스를 시작하고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공한다.⁸⁾

물론 만화에서 주인공 여성의 일이나 직장이 묘사되는 작품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만화 연구가 후지모토 유카리(藤本由香里)는 만화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직업이 뚜렷하게 변화한 계기로 1985년 제정된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을 지적한다.⁹⁾ 소녀만화에서 그려지는 주인공의 직업은 배우, 가수, 모델, 작가, 만화가, 디자이너 혹은 스포츠 선수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직업이 대다수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은 교사 혹은 간호사 정도였지만 1980년대 말에는 회사와 사회생활을 직접 묘사하는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⁰⁾ 후지모토의 지적대로 1970~80년대 소녀만화에서 주인공의 직업은 대개 주인공의 특별함과 천재적인 재능을 돋보이게 하거나 주인공의 유복한 환경 혹은 아름다운 외모를 설명하는 장치로 작동할 뿐 그 직업 자체에 대한 면밀하고도 사실적인 묘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후지모토는 1990년대 작품에서도 여성의 일과 사회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작품은 많지 않다

8) 오가와 야요이(小川彌生)의 〈너는 펫(きみはペット)〉(2000~2005), 오카자키 마리(おかざき真里)의 〈서플리(サプリ)〉(2003~2009), 히우라 사토루(ひうらさとる)의 〈호타루의 빛(ホタルノヒカリ)〉(2004~2009), 안노 모요코(安野モヨコ)의 〈위킹맨(働きマン)〉(2004~2008년부터 휴재 중), 네무 요우코(ねむようこ)의 〈오전 3시의 무법지대(午前3時の無法地帯)〉(2008~2009)와 〈오전 3시의 위험지대(午前3時の危険地帯)〉(2009~2011)등이 대표적이다.

9) 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많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上野千鶴子, 『ネオリベラリズムとジェンダ』, 『ジェンダ-研究』, 第20号, 2017, p.24.) 후지모토 유카리도 이 법에 대해 영성한 법이라고 전제한다. 1985년 제정된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은 기업의 의무 규정으로 차별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차별에 대한 구제방법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7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石橋, 『日本女性政策の変化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に関する歴史的研究』, 立命館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博士論文, 2014, pp.91-92.)

10) 藤本由香里, 『私の居場所はどこにあるの?: 少女マンガが映す心のかたち』, 朝日新聞出版, 2008, pp.308-309.

는 것과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묘사 등에서 다소 황당한 설정이 등장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남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가 일과 조직을 우선하고 직장이나 일에 관한 묘사가 비교적 사실적인 부분에서 여성만화와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한다.¹¹⁾ 이처럼 1990년대까지의 소녀/여성만화는 일 혹은 일하는 여성을 서사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주인공의 로맨스를 위한 배경 내지는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여자 주인공이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직업 공간의 묘사는 불충분하거나 생략되었지만, 여자 주인공의 프로다움이나 노력까지 생략된 것은 아니다. 2000년대가 되면 단순히 회사원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상세하게 묘사되는 작품들이 증가한다. 이들 작품 역시 로맨스 플롯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대 여성만화에는 이전 세대의 작품과는 다른 특징들이 눈에 띈다. 가장 큰 특징은 남자 주인공이 없는 작품, 즉 ‘로맨스’가 서사의 중심에서 비켜난 작품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성만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로맨스가 희석되고 남자 주인공이 있던 자리에는 여성들의 연대와 자아 찾기가 채워졌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로맨스보다는 지금 이 자리의 나, 내 인생,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즐기는 삶이 독자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녀/여성만화가 젠더 문제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에게 소녀만화는 과장된 스타일의 신데렐라 스토리식 연애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11) 藤本由香里, 『私の居場所はどこにあるの?: 少女マンガが映す心のかたち』, 朝日新聞出版, 2008, pp.330-338.

이 아니다. 소녀/여성만화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여성상을 늘 제시해왔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기작품이나 주요 작가의 작품 중에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식 로맨스는 많지 않다. 단행본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한 인기 소녀만화 상위 30작품을 살펴보면 로맨스만을 중심으로 플롯이 구성되는 만화는 총 7편이다. 이밖에도 판타지가 9작품, 코메디 6작품, 학원물 3작품으로 로맨스 이외의 장르적 특징도 함께 가진 작품이 더 많다. 로맨스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 중에서도 여자 주인공의 성장과 우정 등 로맨스 이외의 이야기에 많은 비중을 둔 작품은 5작품이다.¹²⁾ 혁신적인 여자 주인공은 이미 1970년대 초에 등장했다. 총 발행 부수 2천만 부, 소녀만화 18위인 〈베르사유의 장미(ベルサイユのばら)〉(1972)의 주인공 오스칼은 스스로 드레스 대신 칼과 군복을 선택한다. 남자 주인공을 압도하는 오스칼의 지위나 능력은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반대에 위치한다. 발행 부수 5천만 부로 2위에 오른 〈유리가면(ガラスの仮面)〉(1976~부정기 연재중)은 연극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주인공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무대에서 성장하는 내용을 그린다. 극단적인 대결 구도나 숙명적인 라이벌의 존재 등 스포콘¹³⁾의 특징과 클리

12) 출판사 공식 발표 등을 바탕으로 만화 온라인 판매 사이트 '漫画全巻ドットコム' 집계 '漫画歴代発行部数 ランキング' 참조.

(<https://www.mangazentan.com/ranking/books-circulation.html>, 접속일: 2020.8.11.)

소녀만화 발행부수 상위 30작품은 다음과 같다. 〈꽃보다 남자〉, 〈유리 가면〉, 〈NANA〉, 〈왕가의 문장〉, 〈노다메 칸타빌레〉, 〈장난스런 키스〉, 〈꼬마 마루코짱〉, 〈두근두근 투나잇〉, 〈후르츠 바스켓〉, 〈아사리짱〉, 〈유한 클럽〉, 〈파타리리〉, 〈생도 제군〉, 〈치하야후루〉, 〈동물의사 DR 스쿠르〉,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 〈아기와 나〉, 〈베르사유의 장미〉, 〈환상 게임〉, 〈하늘은 붉은 강가〉, 〈젠지 이야기〉, 〈아름다운 그대에게〉, 〈카드캡터 체리〉, 〈나츠메우인장〉, 〈오랑고교 호스트부〉, 〈피치 걸〉, 〈우리들이 있었다〉, 〈바나나피쉬〉, 〈캔디 캔디〉, 〈X〉.

13) 스포콘. 스포츠(スポーツ)와 근성(根性)의 합성어. 1960~7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장르. 극단적인 라이벌 구도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피나는 노력과 스포츠계에서의 성취를 그린다.

세를 차용하면서 주로 소년만화에서 볼 수 있던 치열한 경쟁의 서사를 소녀만화의 세계로 가져온 작품이기도 하다.

소녀만화 중에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가진 작품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작품의 인기나 지명도가 소녀만화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소녀/여성만화의 여자 주인공들은 언제 어느 시대에 있어도 자신의 앞에 주어진 길을 당당히 걸었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운명적 만남과 결합이라는 로맨스가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2010년대의 소녀만화와 여성만화는 눈앞에 있었지만 자각하지 못했거나 외면해 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 등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젠더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은 분명히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로맨스가 사라진 대신 여성 캐릭터가 온전하게 서사의 중심에 있는 작품과 젠더 문제를 다룬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⁴⁾

2-1. 로맨스가 휘발된 서사

여성만화와 소녀만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서사의 중심에 로맨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여성만화에서 주목할 흐름의 하나는 주인공의 로맨스가 작품의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만화 비평가 토미야마 유키코(トミヤマユキコ)는 멋진 남자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만화는 “연애와 결혼으로 여성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14) 본 논문에 소개되는 작품 중 〈나기의 휴식〉과 〈바닷마을 다이어리〉, 〈뿔마루에서 뜬 게 달라졌다〉는 번역본이 한국에 나와 있다.

것이며 이러한 작품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증가했다”고 평가한다.¹⁵⁾ 초유의 대지진 직후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쳤고 자연재해는 대량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인재로 이어졌다. 자연재해는 역설적으로 평범함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 많은 이들이 느낀 평범한 일상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이후의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성만화 잡지 『월간 플라워즈(月刊フラワーズ)』에서 2006년 연재를 시작해 2018년 완결된 요시다 아키미(吉田秋生)의 〈바닷마을 다이어리(海街diary)〉는 네 자매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2007년 제11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만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만화대상 대상을, 2016년에는 제61회 쇼가쿠칸 만화상 일반부문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한국의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에 의해 2015년 영화화되면서 2016년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 등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연극으로도 제작되었다.

주인공들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왕래가 없던 아버지의 부고를 받으며 시작하는 이 만화는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재혼해 낳은 막내동생을 만나고 세 자매가 달리 돌볼 사람이 없던 동생과 함께 살기로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막내 스즈의 시점에서 그려지는 이 작품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장례식도 별다를 것 없이 마무리되고 이복자매인 세 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으레 그려질 법한 드라마틱한 갈등도 없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일상의 평온함과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풍경을 섬세하게 재현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는다. 작가는 작품의 배경이 된 도쿄 근교의 도시 가마쿠라(鎌倉)의 실제 배경을 공들여 표현하고 하루하루

15) 〈少女マンガの傾向は『普通とは何か』を描く、震災以降増加〉, 『女性セブン』, 2019.2.21. (<https://blogos.com/article/356793/>, 접속일: 2020.7.4.)

숨 쉬듯 흘러가는 일상과 조금씩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그린다. 작품의 주인공인 네 자매에게 저마다 애인이 있고 '썸남'도 있지만, 이야기는 로맨스에 집중되지 않는다. 로맨스 서사를 작품에서 걷어 낸다고 해도 이야기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정도의 비중이며 그 로맨스도 주인공들의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녀 사치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카즈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¹⁶⁾ 카즈야는 이혼을 결심하고 사치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제의하지만 사치는 이를 거절한다. 매사에 똑 부러지지만 카즈야와의 관계만이 예외였던 사치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승진하는 등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작품은 끝까지 가마쿠라의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잔잔한 흐름만을 보여준다. 여성만화와 소녀만화에서 로맨스가 배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소녀/여성만화는 대부분 로맨스 플롯을 기반으로 SF, 판타지,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특징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소녀만화와 여성만화에서 로맨스는 필수였지만 최근 이러한 대전제와 규칙에서 벗어난 작품이 증가하고 있다. 로맨스보다도 훨씬 흥미로운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과 보내는 일상의 소중함은 2011년 이후의 일본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를 배경으로 네 주인공의 성장을 그렸다면 매우 색다른 방법으로 여성들의 우정과 자아 찾기를 그린 작품이 있다. 츠루타니 카오리(鶴谷香央理)의 〈뒷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이다. 이 작품은 '이 만화가 대단해! 2019' 여성만화 부문 1위에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17년 11월부터 KADOKAWA 출판사의 웹 코믹 사이트인 '코믹 Newtype(그

16)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하고 있다.

ミックNewtype)에서 연재 중인 작품으로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75세 할머니 이치노이 유키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7세의 고등학생 사야마 우라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다. 더위를 피하려고 잠시 들른 서점에서 이치노이가 단순히 '표지 그림이 예뻐서' 고른 만화책이 하필이면 BL¹⁷⁾이었다. 젊었을 때 읽었던 <베르사유의 장미>, <에이스를 노려라(エースをねらえ!)>¹⁸⁾ 이후 수십 년 만에 접한 만화가 BL이라는 코믹한 설정이지만 인생 황혼기의 할머니는 일흔다섯의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서점의 아르바이트생 우라라는 할머니가 고른 만화가 BL이라는 것에 놀라지만 심지어 2권을 사기 위해 다시 온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 우라라는 BL을 좋아하지만 쉽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지 못한다.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BL이라는 '음지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꺼낼 수 없다고 여긴다. BL을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동인지 이벤트¹⁹⁾에도 참가한다. 동인지 판매전은 이치노이는 물론 우라라에게도 생애 첫 경험이 된다. 두 사람이 동인지 판매전에 참가한다는 것은 꽤 큰 것을 시사한다.

동인지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BL이 상업 출판계로 나온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BL은 다양한 만화 장르가 존재하는 일본에서도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벗어나 있던 장르이고 다소 부족한 개연성이나 과밀한 성적 묘사 등으로 일부 후쵸시(腐女子)²⁰⁾를 위한 장르로 폄하되었다. 그러나

17) Boys' Love. 남성들의 동성에 관계를 그린 만화, 소설, 게임 등의 장르. 직접적인 성관계가 묘사되는 작품이 많다.

18) 모두 1970년대 소녀만화 황금기의 걸작이다.

19) 즉매회(即売会). 동인지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사.

20) 부녀자(婦女子)와 같은 발음이다. 婦가 아니라 腐(썩을 부)를 사용해 BL 장르를 즐기는 여성 팬들을 부정적 의미로 부르던 것이다. 2000년경부터 인터넷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탄탄한 플롯을 가진 장편과 작중에서 묘사되는 주인공들의 직업이나 세계관 설정에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이 증가했다. 2010년대에는 BL 연구서가 활발하게 출간되면서 BL은 만화와 서브컬처 연구의 영역으로 확장, 편입되었다.²¹⁾ 오타쿠에 관한 연구와 긍정적 해석이 199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후조시 연구와 BL 연구는 음지에 머문 기간이 너무 길었다. 여전히 BL은 여성 독자들이 보는 다양한 만화들 중 중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통의 관심사가 BL이라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특별한 취미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며 편견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BL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년들의 동성애를 그린 소년애물(少年愛物)이 등장한 것이 1976년이었고²²⁾ 만화 동인지 판매이벤트인 코믹마켓²³⁾이 시작된 것도 1975년이다. 소년애물은 당시 소녀만화에서 금지된 성표현의 터부를 깨려는 시도였고²⁴⁾ 코믹마켓의 출발은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만화인의 연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여성들에

21) 東園子, 『宝塚・やおい、愛の読み替え—女性とポピュラーカルチャーの社会学』, 新曜社, 2015; 溝口彰子, 『BL進化論 ポーズラブが社会を動かす』, 太田出版, 2015; 西村マリ, 『BLカルチャー論: ポーズラブがわかる本』, 青弓社, 2015, サンキュータツオ, 『俺たちのBL論』, 河出書房新社, 2016 등

22) 다케미야 게이코(竹宮惠子)의 〈바람과 나무의 시(風と木の詩)〉

23) 코믹마켓(コミックマーケット). 1984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개최되고 있다. 1975년 약 700명이 참가한 소규모 행사였으나 1980년대 초 만명 규모로, 1990년대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2007년 이후 이벤트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이벤트를 3일에서 4일로 늘렸고 여름에는 73만 명이, 겨울에는 75만 명이 참가했다. 2020년 여름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다. (コミックマーケット公式サイト, 『コミックマーケット年表』, <https://www.comiket.co.jp/archives/Chronology.html>, 접속일: 2020.8.10.)

24) 김소원, 「그녀들은 왜 소년들의 사랑에 열광하는가?—야마오카 시게유키(山岡重行) 『후조시의 심리학(腐女子の心理学)』,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2018, 296쪽.

대한 이해의 시각은 부족했다. 이치노이가 우연히 BL을 접하고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BL 자체를 모르는 상태, 즉 편견도 환상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함을 낳았지만 아늑한 할머니의 집 뒷마루를 배경으로 그린다.

2-2. 젠더 문제와 마주한 소녀만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와 〈뒷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가 잔잔한 일상과 힐링을 그린다면 마키노 아오이(牧野あおい)의 〈안녕 미니스커트(さよならミニスカート)〉는 도전적으로 성차별과 성희롱 같은 젠더 문제를 그린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녀만화 잡지 『리본(りぼん)』에 연재된 〈안녕 미니스커트〉(2018~휴재 중)는 2019년 제23회 테즈카 오사무 문화상 만화대상에 최종후보작품으로 선출되기도 했고 '2019 모두가 뽑은 TSUTAYA 코믹대상' 10위, '이 만화가 대단해! 2020' 여성만화 부문 1위를 획득했다. 위의 두 작품이 성인 여성을 주요 독자로 하는 것과 달리 〈안녕 미니스커트〉는 10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녀만화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소녀만화에서 사회적 문제, 특히 젠더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기란 쉽지 않다. 성인 여성의 직장 생활과 연애에서 오는 고민과 현실을 그리는 대신에 작가는 고등학교로 무대를 옮겨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느끼는 고민과 성차별을 그렸다.

작품에서 지하철 성추행, 여성전용차량 논란, 여성 아이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설 새 없이 쏟아지지만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법한 일들이다. 『리본』이라는 잡지의 정체성대로 이 작품은 전형적인 소녀만화 스타일을 보여주지만, 내용은 상당

히 파격적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여자 주인공 카미야마 나나는 바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닌다. 바지와 스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교칙이 있지만, 바지를 입고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나나가 유일하다. 이러한 주인공의 설정만큼 1권의 첫 에피소드에서 쏟아지는 대사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늘 짧게 줄인 교복을 입고 다니는 미쿠가 하굣길에 누군가가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한다. 주변 학교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잡혔지만,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온도 차이다. 미쿠의 안부를 묻는 학생들에게 답임인 남자 교사조차 “하굣길에 누군가 스치면서 허벅지를 만진 것뿐이야. 다치지도 않았고”²⁵⁾라고 말한다. 게다가 남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처참하다.(그림 1)

남학생 A(이하 A) : 뭐야, 허벅지라니 다행이네

남학생 B(이하 B) : 미쿠짱 허벅지라면 나라도 만져 보고 싶겠다!

A : 솔직히 그 변태가 부럽다.

여학생 : 뭐... 뭐라고!? 너희들 머리 이상한 거 아니냐?

B : 아니 그렇게 치마가 짧으면 만지고 싶어지는 거 아냐

너희들도 그래. 변태가 무서운 주제에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

그렇게 겁나면 바지를 입던가 (중략)

B : 결국 남자들한테 아양 떨려고 치마 같은 거 입는 거 아니냐?

B : 그러니까 누가 만지는 것도 당연한...

나나 : (책상 위로 올라가 남학생 B에게 빠르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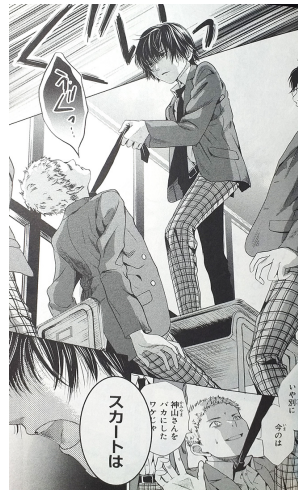
챤다) 치마는 너희 따위 남자들을 위해 입는 게 아니라고 ²⁶⁾

사실 주인공 나나는 “지구 최후의 미니스커트 아이돌”인 퓨어클럽

25) 牧野あおい, 『さよならミニスカート』 1, 集英社, 2018, p.35. 필자 번역, 강조점 추가.

26) 牧野あおい, 『さよならミニスカート』 1, 集英社, 2018, pp.35-38. 필자 번역.

(PURE CLUB)의 멤버였던 인기 아이돌 카렌으로 팬 이벤트 중 팬을 자처하는 괴한의 칼에 찔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룹을 탈퇴한 카렌에 대해 “여자인 걸 이용해서 남자들 낚아서 돈이나 벌고 그러니까 원한을 사는 게 당연하잖아. 싫으면 애초에 아이돌 같은 걸 왜 하냐고”라는 승객의 대화를 지하철에 타고 있던 니나(=카렌)가 우연히 듣게 된다. 니나는 그날 긴 머리를 스스로 자른다. 본명으로 학교에 다니는 니나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아본 남학생 히카루는 답답하게 성추행을 당한



〈그림 1〉 〈안녕 미니스커트〉 1권 38쪽

여동생이 괴로움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버렸지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어 유도를 배우게 된다. 니나에게도 미쿠에게도 그리고 히카루에게도 정해진 성 역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니나의 아이돌 시절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진 않는다. 히카루의 여동생이 괴로워하던 시기 퓨어클럽에게서 위로를 받은 것이다. 당당하게 무대에 서 있는 니나의 모습을 보고 히카루의 여동생이 ‘여자여도 괜찮겠다’며 용기를 얻는 것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은, 소녀만화로서 최소한의 선은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작가의 배려로 읽히기도 한다.

이 작품은 단행본 1권이 발매되자마자 10만 부가 팔려나갔고 SNS상에서 작품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니나가 괴한의 칼에 찔린 피해자임에도 아이들을 관둘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성추행의 원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있다는 발상은 일본에서 성범죄나 성희롱 등이 사회

적 문제시 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 책임론’의 전형적인 예이다. ‘자기 책임론’이란 단어의 뜻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벌어지는 결과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책임론’의 핵심은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납치된 후 석방되었거나 납치 후 살해된 일본인 인질들에 대해 위험한 곳에 스스로 간 것이니 자업자득이며 주변에 폐를 끼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²⁷⁾ 이러한 ‘자기 책임론’은 에도시대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성공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이듯 실패와 가난도 노력이 부족했던 그 자신의 탓이라는, 통치자에게 매우 편리한 이론이 된다.²⁸⁾ 그리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일본인의 특성은 이러한 ‘자기 책임론’과 결합해 개인이 조직과 전체에 순응하게 한다. 사회의 균형과 질서를 깨는 것은 쉽게 용납되지 않으며 원인이 무엇이든 먼저 개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한다. 어떤 범죄나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로 수렴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된다.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전체를 혁신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자기 책임론’은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9년 1월 일본의 유명 걸그룹 멤버가 집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다음 날 공연에서 멤버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했고 소속사의 대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²⁹⁾ <안

27) 饗場和彦, 『安田氏解放をめぐる「自己責任論」: 背景にある日本の政治・社会の特性』, 『徳島大学開放実践センター起票』第28巻, 徳島大学, 2019, pp.35-36.

28) 饗場和彦, 『安田氏解放をめぐる「自己責任論」: 背景にある日本の政治・社会の特性』, 『徳島大学開放実践センター起票』第28巻, 徳島大学, 2019, pp.40-41.

녕 미니스커트)는 일본 사회가 은연중에 주입한 여자다움과 남자다움 모두가 잘못되었으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폭력은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임을 매우 강한 메시지로 전달한다. 일상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 혹은 그 이상의 것에 대해 그동안 만화는 물론이고 다른 매체에서도 정면으로 다룬 적이 별로 없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를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다. <안녕 미니스커트>의 단행본 피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만화에 무관심한 여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무관한 여자는 없다.”³⁰⁾

3. <나기의 휴식>

이처럼 2010년대 일본의 소녀/여성만화에서는 분명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기의 휴식>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나기의 휴식>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나기를 통한 대리 만족과 나기에게 독자들 자신을 투영해 공감대를 형성한 서사로 볼 수 있다. 주인공 오오시마 나기는 도쿄에 거주 중인 28세 회사원이다. 손질 잘된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하고 있지만 실은 심한 곱슬머리로 나기의 긴 생머리는 스트레이트 펌과 매일 아침 공을 들인 헤어스타일링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야기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마지못해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일을 자신에게 미루는 회사 동료들에게 싫다는 말은커녕 바쁘다는

29) 徳重辰典, <NGT山口真帆さん謝罪にネットで疑問の声>, 『BuzzFeed News』, 2019.1.11. (<https://www.buzzfeed.com/jp/tatsunoritokushige/ngt4820191010>, 접속일: 2020.7.6.)

30) 牧野あおい, 『さよならミニスカート』 1, 集英社, 2018. 피지 문구. 필자 번역.

말조차도 못하는 나기는 그저 웃으며 모든 잡무를 떠안는다. 나기는 이러한 자신의 매일을 한 마디로 “뒤탈까 좀 그런” 하루라고 생각한다.³¹⁾ 언제나처럼 나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먼저 퇴근한 동료가 두고 간 핸드폰의 단체 대화방에선 여직원들이 모여 나기의 흉을 보고 있다.³²⁾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 하는 나기는 설상가상으로 주변 모르게 사내연애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 신지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나누는 잡담을 듣게 된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도 아니고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며 잠자리가 좋아서 만난다는 것이다.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던 결혼, 자신을 그저 그런 하루에서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신지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과호흡을 일으킨 나기의 독백이 많은 독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다.

“28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공기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라는 것을”³³⁾

3-1. ‘공기를 읽는다’는 의미

‘공기를 읽는다’는 것은 일본 특유의 대인관계를 나타낸다. 그 자리의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상대가 내게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추측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공기를 읽지 못하는’

31) 코나리미사ト, 『風のお暇』 1, 秋田書店, 2017, p.9. 필자 번역.

32) 게다가 거짓말한 동료는 단체 대화방에 있는 다른 여자 직원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나기에게 일을 미뤘고 단체 대화방의 직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33) 코나리미사ト, 『風のお暇』 1, 秋田書店, 2017, p.27. 필자 번역.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공기를 잘 읽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³⁴⁾ 일본론의 주요 학자인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는 ‘공기’란 일본 사회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해석한다.³⁵⁾ 이렇게 ‘공기를 읽는’ 경향이 강해진 원인으로 전통적인 사회의 붕괴와 SNS의 발달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³⁶⁾ 나기는 회사 안의 판단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기가 SNS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늘 주변인들의 SNS를 체크하고 자신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밀려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처럼 〈나기의 휴식〉 초반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공기를 읽는’ 문화이다. 나기는 타인이 원하는 대로 맞추고 살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No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게 일상이 되어 버렸다. 과호흡으로 쓰러진 나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처분하고 스마트폰을 구형 폴더폰으로 바꾸고 도쿄 근교의 월세 3만 엔짜리 단칸방으로 이사해 버린다. 이사 첫날 손질하지 않은 짧은 곱슬머리로 잠에서 깨어 종이상자를 식탁 삼아 간단한 식사를 마친 나기는 심호흡을 하며 ‘공기’조차도 달게 느낀다. 모든 것을 버린 날 나기는 ‘읽는 공기’가 아니라 ‘들이마시려고 내쉬는 공기’에 행복해한다. 실제로 많은 일본인이 주변을 의식하고 소위 ‘공기를 읽는’ 행동을 한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문화는 더욱 가혹하다. 일본사

34) 西川学, 『空気を読む日本人』, 『人権を考える』 第23巻, 関西外国語大学 人権教育思想研究所, 2020, p.133.

35) 최용우, 『일본의 공사(公私) 개념과 여성의 위치』, 『日本文化學報』 第84輯, 2020, 123쪽.

36) 西川学, 『空気を読む日本人』, 『人権を考える』 第23巻, 関西外国語大学 人権教育思想研究所, 2020, p.137.

회에는 공기처럼 존재하는 공사영역의 구분이 있다. 사(私)는 공(公)에 종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적영역은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여성, 특히 기혼여성은 “사적영역(가정)을 담당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을 중시하는 일본, 특히 직장에서의 여성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³⁷⁾ 이는 미혼 여성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혼 후 사적 영역으로 편입될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민하게 공기를 읽고 행동하는 것이 여성들의 미덕으로 포장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나기의 휴식〉은 나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인생 리셋’이 이야기가 주된 서사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나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인물들은 모두 여성들이며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나기의 옛 남자친구인 신지는 나기의 주변을 맴돌긴 하지만 그뿐, 나기에게 어떤 고민거리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작품 속에서 나기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첫 상대인 옆집 남자 곤은 나기에게 두근거림을 주지만 곤과의 불분명한 관계에 피폐해진 나기가 과감하게 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야기의 한쪽으로 밀려난다. 현재 7권까지 진행된 서사에서 나기는 신지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곤과 확실한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나기 스스로가 둘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행동 자체가 자립을 뜻한다. 나기는 학벌 좋고 유복한 집안의 아들인 신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기가 신지의 무심함에도 관계를 지속했던 것은 그와의 결혼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인생 리셋’ 후 만난 곤은 신

37) 최용우, 『일본의 공사(公私)개념과 여성의 위치』, 『日本文化學報』 第84輯, 2020, 121-122쪽.

지와 달리 매우 세심하지만, 모두에게 친절하곤 역시 나기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다. 곤과의 만남이 꽤 로맨틱해질 무렵 나기는 곤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결국 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수습한다. 누군가와의 연애, 정확히는 남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성만화에서 여자 주인공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이다.

3-2. 편견을 타파한 캐릭터

‘공기를 읽는’ 행위를 더는 하지 않기로 자신에게 선언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나기는 남 눈치를 보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나기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캐릭터들은 모두 여성이다. 취업 지원 센터에서 만나게 된 나기와 동갑인 사카모토 료코는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했던 나기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물이다. 사카모토는 일본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좀처럼 재취업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큰 목적의식 없이 공부했고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대학교 3학년 여름 무렵 구직활동이 시작되면서 공부 이외에는 아무런 재능이 없음을 깨닫는다. 인턴십 이력, 화술, 면접 모든 게 애매한 채로 작은 회사에 간신히 취직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학벌이 좋아 봐야 쓸데없다는 조롱을 듣고 회사를 수차례 옮긴다. 상대방의 의중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카모토는 대인관계를 힘들어하고 결국 구직 중인 상태로 나기와 만나게 된다. 나기와의 만남과 대화, 조언을 통해 사카모토는 변화한다. 타인에게 ‘응, 좋아’ 이외에는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못했던 나기가 사카모토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나기 자신의 성장이기도 하다.

나기의 주변 인물들은 나기와 대조적인 모습, 즉 적극적이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특히 나기가 세 들어 사는 낡은 목조 2층 아파트의 이웃들은 나기가 그때까지 만나 본 적 없는 여성들로 그려진다. 나기의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우라라의 엄마인 시라이시 미즈스의 묘사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편협한 시선에 대해 답답함과 그 편견을 깨는 통쾌함을 동시에 독자들에게 준다. 미즈스는 남편과 사별하고 딸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아름답고 가냘픈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우라라 친구의 엄마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일하는 도중에 입고 나왔다는 작업복 차림의 미즈스와 대비되는 원피스와 정장 차림의 엄마들이 우라라의 엄마를 대하는 태도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의 시선이 더해진 경멸에 가깝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남자 직원들 여럿을 부하직원으로 둔 미즈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미즈스는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준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벽하게 자립한 미즈스는 나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다. 미즈스가 남성들의 영역인 건설회사에서 간부이고 초대형 건설 장비를 자유롭게 다루는 모습은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뚜렷하게 자기 일을 수행해가는 여성을 그린다. 건강한 노동으로 자신과 딸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미즈스는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을 차별이나 편견으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신의 삶에 당당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기의 방 바로 위층에 사는 요시나가 할머니의 설정 또한 매우 흥미롭다. 요시나가는 처음 나기와 마주쳤을 당시 자판기의 동전 반환구를 뒤져 동전을 모으고 버려지는 식빵 테두리를 빵집에서 얻어가는 남루한 할머니로 묘사된다. 나기가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한 요시나가지만 실은 홈시어터를 방에 갖춰 놓고 멋진 의자에

아아 시니어 요금으로 저렴하게 빌린 DVD를 매일 감상하는 영화광이다. 빵집에서 얻은 식빵 조각으로 만든 초코 과자는 놀랍도록 맛있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집은 좁지만, 매우 쾌적하다. 그리고 그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는 취미 생활을 위해 산다. 나기가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취미와 현재의 만족을 누구보다 충실히 만끽하며 사는 것이다. 요시나가는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기는 “저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태도는 작품 속의 나기뿐 아니라 많은 여성이 동경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4. 〈다루짱〉

주변을 끝없이 의식하고 살던 나기가 자신의 자아를 찾아 나선 것처럼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고 살던 여자 주인공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인상적인 작품이 있다. 하루나 레몬(はるな檸檬)의 〈다루짱〉이다. 〈다루짱〉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화장품 메이커 시세이도 웹사이트인 하나츠바키(花椿)에서 연재된 작품으로 만화 전문잡지도 아니고 만화 전문플랫폼도 아닌 화장품 회사의 홍보용 사이트에서 연재되었음에도 연재 당시의 형태인 컬러 만화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의 하나인 쇼가쿠칸에서 단행본으로 발매된 직후 2쇄 인쇄를 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나기의 휴식〉이 독자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주었다면 〈다루짱〉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함께 전달한다.

4-1. 여성에게 엄격한 사회

〈다루짱〉의 주인공은 마루야마 나루미라는 이름의 파견사원³⁸⁾이다. 나루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실은 다루다루 성인(星人)인 다루야마 다루미이다.(그림 2) 평범한 부모님께 태어났지만, 얼굴 부위를 제외하면 형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호물호물한 아메바 같은 신체를 한 나루미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샤워하고 머리를 드라이어로 정리하고 화장하고 호물거리는 다리에 스타킹을 힘들여 신고 하이힐까지 신으면 평



〈그림 2〉 〈다루짱〉 1권

범한 회사원 마루야마 나루미로 '변신'한다. 나루미는 긴장이 풀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긴장하면 본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집 밖에서는 보통사람으로 지낼 수 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루다루성인이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생각이나 취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수가 선택하는 사회 통념에 맞춰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루미는 최선을 다해 평범해 보이도록 살았고 주변 친구들의 말투나 취향을 따라 하면서 '보통의 여자아이'로 보이는 데에 성공한다. 물론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게 다루다루성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일본이 특히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사회라는 것은 이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다루짱〉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 심

38) 인제 파견회사에 등록되어 기업에 파견되는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원

리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와 일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특히 나루미가 회사에서 겪는 여러 차별과 불합리한 상황에는 성희롱, 성차별적인 요소가 상당수 담겨 있다. 평소에는 정중했던 남자 직원 스기타가 회식 자리에서 나루미에게 술을 권하며 등에 손을 대기도 한다. 농담에도 그저 웃으며 응대하는 나루미에게 스기타의 농담은 점점 도를 넘어선다. “짧으니까”, “실수해도 봐주니까”, “바보같다”라는 농담에도 나루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자신이 실수한 것은 없는지 고민한다.³⁹⁾ 스기타의 무례함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성희롱을 ‘sexual harassment’를 줄여 ‘세쿠하라(セクハラ)’라고 부른다. 이는 sexual보다는 harassm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타인에 대해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 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보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쿠하라’라는 국적 불명의 언어가 주는 가벼움은 오히려 말장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⁴⁰⁾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자기 책임론’이 더해지면 결과는 최악이 된다. 스기타는 사과하겠다고 퇴근 후에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의하고 술을 마신 후 러브호텔로 나루미를 데리고 간다. 긴장한 나머지 다루다루성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나루미를 본 스기타는 비웃으며 돌아가 버린다. 스기타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호감이라고 억지로 믿었던 나루미는 큰 상처를 입는다. 최악의 상태는 피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지만, 성희롱에 대한 묘사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39) はるな檸檬, 『ダルちゃん』 1, 小学館, 2018, pp.18-20.

40) 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여성문학연구』 제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01쪽.

4-2. 냉정한 현실 묘사

〈다루짱〉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나루미가 다니는 회사 조직의 구조이다. 단순 사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대부분이 파견사원이고 남자 직원들은 정규직 사원으로 그려진다. 일본은 특정 지역이나 소속기관과 같이 일정한 테두리 속에 집단을 구성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집단은 소속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립감을 초래하기도 해서 집단 안의 인간과 밖의 인간을 차별하는 의식으로도 표출된다.⁴¹⁾ 파견사원은 일은 파견된 회사에서 하지만 속해 있는 회사는 파견회사로 급여도 파견회사로부터 받는다.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의 제정과 여성보호규정의 폐지에 따라 남성 정규직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해내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결국 가사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여성은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⁴²⁾ 〈다루짱〉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나루미가 하는 다양하지만 단순한 업무를 지속해서 보여준다.

새로운 담당 직원인 히로세의 일 처리 방식 때문에 업무 진행이 늦어지자 파견사원은 모두 퇴근하고 나루미만 남아 히로세의 일을 돕는다. 나루미는 자신에게 있을 곳과 해야 할 일을 제공하는 회사를 좋아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없는 위치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 일본은 파견직의 다수가 여성이고 남녀 임금 격

41) 최용우, 「일본의 공사(公私)개념과 여성의 위치」, 『日本文化學報』 第84輯, 2020, 112-113쪽.

42) 가나이 카오루,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와 젠더 차우 격차」, 『국제노동브리프』 18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85쪽.

차도 선진국 중 가장 큰 편이다.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임금은 1980년 54.6%, 1990년 51.1%, 2000년 51.4%, 2007년 52.2%로 그 격차가 큰 편이다.⁴³⁾ 이러한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1987년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37.1% 였던것이 2007년에는 55.2%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1987년 9.1%에서 2007년 19.9%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증가율과 비정규직 비율 모두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본의 GGI(성격차지수)는 매우 낮은 편인데 2011년 98위에서 2015년 105위⁴⁴⁾, 2019년 121위⁴⁵⁾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나루미를 파견 사원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독자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루미는 자신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히로세와 연인이 되지만 나루미가 같은 파견사원인 사토의 영향으로 시를 쓰게 되고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된다. 히로세가 시의 내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히로세는 나루미가 시를 쓰는 일 자체는 따뜻하게 응원했지만 시의 일부에서 자신을 묘사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⁴⁶⁾ 결국 히로세와 헤어진 후 나루미는 시를 쓰는 일에 더욱 몰두한다. 나루미는 시 속에서 휴식과 자아를 찾는 것이다. 사토의 결혼식에서 다루다루성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하객

43) 石橋, 『日本女性政策の変化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に関する歴史的研究』, 立命館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博士論文, 2014, p.97.

44) 上野千鶴子, 「ネオリベリズムとジェンダ」, 『ジェンダ-研究』, 第20号, 2017, p.21.

45) 〈한국 남녀 성 격차 줄었다.. 일본보다 평등〉, 『세계일보』, 2019.12.17,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7510134?OutUrl=daum>, 접속일: 2020.7.12.)

46) 히로세의 불편한 다리를 암시하는 내용이 한 줄 포함되어 있고 히로세에 대한 나루미의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히로세는 자신의 인생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훑쳐 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을 보고 놀라지만 하객의 대답은 “괜찮아요. 이런 거 의외로 주변에 아주 많으니까”이다. 주변을 둘러보는 나루미의 눈에는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다루다루성인의 모습이 보인다. 아무렇지 않게 산책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다루다루성인의 모습이 보이고 나루미는 다루다루성인들이 제법 많은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는 완결된다. <다루짱>은 한 권이 100쪽이 조금 넘는 단행본 2권 분량으로 일반적인 장편 연재만화와 비교하면 분량이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짧은 분량 안에서 하고 싶은 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한다.

5. 결론

2010년 이후 소녀/여성만화의 중요한 변화는 1) 여성만화에서 로맨스를 배제한 작품의 증가 2) 평범한 삶, 진정한 자아에 대한 갈망 3) 여성에 대한 차별, 성희롱, 비정규직 문제 등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작품 속에서 시사 4) 여자 주인공이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로맨스가 배제된 여성만화가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화가 진화하면서 일어난 변화의 하나는 만화가 어린이의 전유물이 아니라 청소년, 성인층도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의식의 변화와 독자층의 확대이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소년만화 잡지와 소녀만화 잡지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상업 만화 시장이 형성되었다. 소년, 소녀 즉 어린이들의

것이었던 만화는 독자들이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함께 어른이 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 잡지 다음으로 10대 후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이, 그리고 다음 순서로 20대 30대 독자를 위한 잡지들이 창간된다. 지속해서 만화의 스펙트럼을 확대했고 독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하면서 소녀만화와 여성만화에서 로맨스 이외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녀만화와 소년만화가 철저히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소녀만화 잡지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소년만화나 청년지로 영역을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소년만화에서 로맨스나 감성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경우도 증가했다. 그림체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작품들도 증가했고 특히 소녀만화 잡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작가가 소년만화 혹은 청년만화잡지로 옮겨간 경우 소녀만화 잡지에서 활동하던 작화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독자의 성별로 만화를 구분하던 전형성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2010년대 여성만화에서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할 수 있는 여유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 것은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인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나기와 나루미 모두 눈에 띄지 않고 무난하게 사람들 사이에 섞이길 원했다.

그리고 만화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직접 드러나는 경향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여성에게 되풀이되어 온 모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 Me too 운동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의 Me too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거나 사회적 운동이나 연대로 이어지진 못한 것은 사실이다.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時織)는 2015년 TBS 방송국 워싱턴 지부장이었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를 준강간 용의로 고발했지만 다음 해인

2016년 혐의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고 검찰에 이의 신청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Black Box』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일본의 사법제도, 경찰 조사방법의 문제점과 미디어의 보도 태도 등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2015년 이토 시오리의 기자회견은 Me too 운동의 사례로 해외에 알려졌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어린 시절 모델로 활동했던 경력과 세련된 외모, 뉴욕에서의 유학경험 등은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2차 가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토 자신도 기자회견보다는 저서 『Black Box』로 인한 반향을 더 크게 느꼈다고 이야기한다.⁴⁷⁾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서 Me too 운동이 확산되지 못한 것은 언론, 방송, 광고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상품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자기 책임론’을 이유로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그리고 일본 사회는 개인 스스로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일본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적인 행동이 결코 장려되지 않는 사회라는 지적도 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번역 출간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의미 있는 판매량을 보여주었고 비평지에서 페미니즘 특집을 꾸미는 등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⁵⁰⁾

47) 伊藤時織, 「『Me too』が忘れ去られても、語る事ができる未来に向けて」, 『現代思想』 46-11, 青土社, 2018, p.9.

48) 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여성문학연구』 제27호, 2019, 103쪽.

49) 高島千代, 「『Me too』運動—広がらない日本を考える」, 『エコノフォーラム21』 第25号, 関西学院大学 経済学部, 2019, p.18.

50) 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여성문학연구』 제27호, 2019, 109쪽.

〈다루짱〉은 비정규직 문제, 특히 ‘파견사원’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고용방법을 사실적으로 다룬다.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고용 유연화와 함께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증가했지만,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과 비교해 훨씬 높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의 여러 문제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것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났고 만화는 이것을 그대로 작품 속에 반영한 것이다. 후지모토는 특히 소녀만화는 그 시대의 여성상과 가치관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야로 평가한다.⁵¹⁾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는 연애에 관한 메시지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메시지는 결국 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의 만화는 잡지를 기반으로 한다. 편집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며 편집부와 작가 모두 독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한다. 시대의 요구와 독자들의 취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토미야마 유키코는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레티샤 콜롱바니의 〈세 갈래 길〉 등의 소설이 히트하면서 “문학에 의한 페미니즘 갱신”은 이루어졌으니 소녀만화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화가 문학만큼의 평가는 얻을 수 없다고 해도 페미니즘의 “보이지 않는 침투와 확산”을 통해 소녀만화의 성취는 기대해볼 만한 것이라고 평가한다.⁵²⁾

소녀만화와 여성만화는 사회가 부여한 성 역할을 그대로 재현하는 동시에 반발하고 혁파하며 발전했다. 오랫동안 소녀만화와 여성만화가 환상의 로맨스만을 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소녀만화와 여성만화가 로맨스를 그리는 동시에 이들 만화의 여자 주인공은 스스로 재능을

51) 藤本由香里, 『女と恋愛—少女マンガのラブ・イリュージョン』, 『日本のフェミニズム 11: フェミニズムと文学批評』, 岩波書店, 2009, p.197.

52) トミヤマユキコ, 『現代の少女マンガとフェミニズム』, 『現代思想』 48-3, 青土社, 2020, p.76.

발견하고 터부와 싸우며 성장했고 때로는 성 역할을 뒤집기도 했다. “소녀만화의 반골 기질”⁵³⁾은 소녀만화와 여성만화가 발달하는 원동력이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기 시작한 일본만화의 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53) SK-II, 〈空気読み過ぎな「風のお暇」が浮かび上がらせた、人生の「タイムライン」にとって重要なものとは〉, 『Huffingtonpost Japan』 2019.10.9,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k2-timeline_jp_5d9700f6e4b0f5bf79726696, 접속일: 2020.7.6.)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요시다 아키미, 『바닷마을 다이어리』(전9권), 애니박스, 2009-2019.
코나리미사토, 『凧のお暇』(전7권), 秋田書店, 2017-2020.
牧野あおい, 『さよならミニスカート』(전2권), 集英社, 2018-2019.
鶴谷香央理, 『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전4권), 角川書店, 2018.
はるな檸檬, 『ダルちゃん』(전2권), 小学館, 2018.

2. 논문과 단행본

- 가나이 카오루,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와 젠더 처우 격차』, 『국제노동브리프』 18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81-90쪽.
김소원, 『그녀들은 왜 소년들의 사랑에 열광하는가?-야마오카 시게유키(山岡重行) 『후죠시의 심리학(腐女子の心理学)』』,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2018, 275-304쪽.
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여성문학연구』 제27호, 2019, 87-118쪽.
최용우, 『일본의 공사(公私)개념과 여성의 위치』, 『日本文化學報』 第84輯, 2020, 107-126쪽.
高島千代, 『「Me too」運動一広がない日本を考える』, 『エコノフォーラム21』 第25号, 関西学院大学 経済学部, 2019, p.18.
藤本由香里, 『私の居場所はどこにあるの?: 少女マンガが映す心のかたち』, 朝日新聞出版, 2008.
_____, 『女と恋愛—少女マンガのラブ・イリュージョン』, 『日本のフェミニズム』 11: フェミニズムと文学批評』, 岩波書店, 2009, pp.195-222.
上野千鶴子, 『ネオリベラリズムとジェンダ』, 『ジェンダ研究』 第20号, 2017, pp.21-33.
西川学, 『空気を読む日本人』, 『人権を考える』 第23巻, 関西外国語大学 人権教育思想研究所, 2020, pp.131-144.
石橋, 『日本女性政策の変化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に関する歴史的 연구』, 立命館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博士論文, 2014.
伊藤時織, 『「Me too」が忘れ去られても、語る事ができる未来に向けて』, 『現代思想』 46-11, 青土社, 2018, pp.8-16.
饗場和彦, 『安田氏解放をめぐる「自己責任論」: 背景にある日本の政治・社会の特

性』, 『徳島大学開放実践センター起票』第28卷, 徳島大学, 2019, pp.35-48.
トミヤマユキコ, 『現代の少女マンガとフェミニズム』, 『現代思想』 48-3, 青土社,
2020, pp.69-76.

3. 기타자료

- 〈한국 남녀 성 격차 줄었다.. 일본보다 평등〉, 『세계일보』, 2019.12.17.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7510134?OutUrl=daum>)
- 徳重辰典, 〈NGT山口真帆さん謝罪にネットで疑問の声〉, 『BuzzFeed News』, 2019.1.11.
(<https://www.buzzfeed.com/jp/tatsunoritokushige/ngt4820191010>)
- SK-II, 〈空気読み過ぎな『風のお暇』が浮かび上がらせた、人生の『タイムライン』に
とって重要なものとは〉, 『Huffingtonpost Japan』, 2019.10.9.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k2-timeline_jp_5d9700f6e4b0f5bf79726696)
- 〈少女マンガの傾向は『普通とは何か』を描く、震災以降増加〉, 『女性セブン』, 2019.2.21.
(<https://blogos.com/article/356793>)
- 〈コミックマーケット年表〉(コミックマーケット 公式サイト)
(<https://www.comiket.co.jp/archives/Chronology.html>)
- 漫画全巻ドットコム
(<https://www.mangazengan.com/ranking/books-circulation.html>)
- 花椿 (<https://hanatsubaki.shiseido.com/jp>)
- コミックシーモア (<https://www.cmoa.jp>)
- ビデオリサーチ (<https://www.videor.co.jp>)

Abstract

A Change of Japanese Jyosei Manga in the 2010s -Disappearance of Romance and the appearance of a Self

Kim, So-Won(Sangjii University)

Manga develops by reflecting a change of society, reader's needs, and their thoughts and changes of tastes, sensitively. Shojo manga and Jyosei manga also do. We can find several kinds of meaningful changes in Japanese Jyosei manga in the 2010s. The works which represent preciousness of daily life, women's narrative and self-realization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the works that deal with very touchy issues such as sex discrimination at work, sexual harassment begin to emerge. It has never been found in the manga of the former era.

While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and cultural causes of these changes of the works that exclude romance and treat gender issues focusing on recent works, it examines changes of Japanese Jyosei manga in the 2010s and their meanings. I investigate the current trends of Japanese Jyosei manga in the 2010s through *Uminachi Diary* that represents a precious everyday life with woman-centered narrative, *Metamorphose no engawa* that deals with women's story from a new perspective, *Good-bye My Miniskirt* that tackles gender issues. Furthermore I intensively analyze how *Nagi's Long Vacation* and *Darucyan*, which win popularity from women in their 20s-30, represent lives and troubles of contemporary Japanese women. *Nagi's Long Vacation* represents the heroine's quest for a self throwing everything out. While *Darucyan* deals with self-realization, it forms of a bond of sympathy of readers by representing the heroine who suffers sexual harassment and unequal conditions very realistically. *Nagi's Long Vacation* and *Darucyan*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portraying troubles and self-realization of the working women in their 20s based on a indigenous reality to Japanese society very realistically. However they are unusual in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manga of the former era in dealing with heroine's troubles and their solutions.

The most distinctive changes of Jyosei manga since 2010 are that real issues

surfaced with social changes. In addition, these social contradictions result from irrational discriminations and old customs of Japanese society for a long time. Manga reflects subtly the portraits of the times, their images of women, and their values. These changes of Jyosei manga also show the concerns of readers at that time, and it means that women began to be aware of the issues.

(Keywords: manga, Shojo manga, Jyosei manga, *Nagi's Long Vacation*, *Darucyan*, Japanese manga, 2010s)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